



총여가 뭐다

총여로...

즐거운 파괴/내안의 나를 열고 세상을 깨자
13대 총여학생회



눈을 크게 떠봐요!

즐겁고 자유로운 새터 문화 만들기

"새터 성문화 감시단" 이 됩시다.

새터에 참여하는 시대인이라면 누구나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행이나 여성비하적인 발언,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놀이나 게임, 성추행을 발견하면
즉시 총학생회장으로 연락해 주세요!

연락처: 210-2361, 호출: 012-1568-6254

덜 익은 사과향기의 풋내음이 상큼하게 밀려오듯
개성 강한 98새내기와의 만남이 가슴을 쿵쿵쿵쿵 뛰게 합니다.
총학생회와 새 주인이신, 새내기 여러분 반가워요!

살며시 대학이라는 품을 열어 적히고 그 무한한 가능성과 자유의 바다. 다
양함이 서로 부딪치는 파도... 그 속으로 몸을 던져 볼까요?
거침없는 솔직함으로 내 안에 잠재된 끼를 마음껏 펼쳐 보여자구요.

"세상은 나를 침묵하는 인형으로 길들이고 순종과 인내를 가르치지만
여성을 열등하게 규정하고 차별화하는 그 논리를.
그 허상의 껍질을 벗고 결코 나는 나약하지 않음을 말하겠습니다."

3차 성징!

세상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을 여성으로 자각하는
과정이며 시기는 연령이나 성장 속도와 관련 없다.
대부분의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상당한
고통을 수반한다.

3차 성징을 함께 나누고 싶은 女男 새내기는
언제든지 총학생회로 오세요!
여성임이 즐겁고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죠?
남학우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죠?

13대 총학생회장 안혜숙
부총학생회장 장은희



그럼 총학생회를 방문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는지
들어다 볼까요?



♡ 차례 ♡

- 1 인사글
- 3 충여학생회는 왜 있죠?
- 6 시대에서 어대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여기치 않은 달거리)
- 8 나의 성지식 점수는 몇점?
- 10 IMF 와 여성
- 16 Miss NO가 결혼하기 까지...
- 22 새녀얼건...開花
- 25 소킹! 소킹!
- 26 눈으로 떠나는 기획
- 28 뽕중 세미나, 여성학 소모임
- 29 학내 성폭력 학칙 개정
- 30 Cross Puzzle
- 32 광고 패러디
- 33 충여가 어디 있냐구요?

충여학생회

왜 있죠?

여기는 98년 신입생 O.T.
새내기들이 충여학생회를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과에서 왔는데요,
충여학생회가 무슨 일을
할까요?



에이, 공자왈을 안드려요. 자, 자기소개와 함께
노래를 불러주면 어떤가요?



자, 그럼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생각해서, 여학생... 이런 얘기
한번도 안 들어 본 사람 있죠?
아니 한번 해봐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학사라는 굉장히 건보적이거나
학업적인 그런게 사실 많지 않은 부분이 많
아요. 이것은 대학원 학생들이 볼때는 아마
남학생들이 많이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일
것은 다른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었거나, 혹은
여학생들은 가혹하게 갈구하는 기분이
많이 부딪히게 되는 때문에
그런 것일거예요.

그러면 충여학생회를
편견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충여와 남남 구별하기 힘들다고 느낀 분, 나우누리 G. SCU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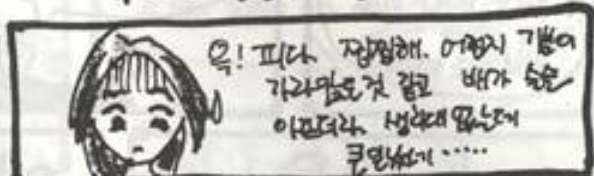
가장 야한 책 (Book) : 야해책 (H)



가장 야한 신발 : 야해보스 (shoe)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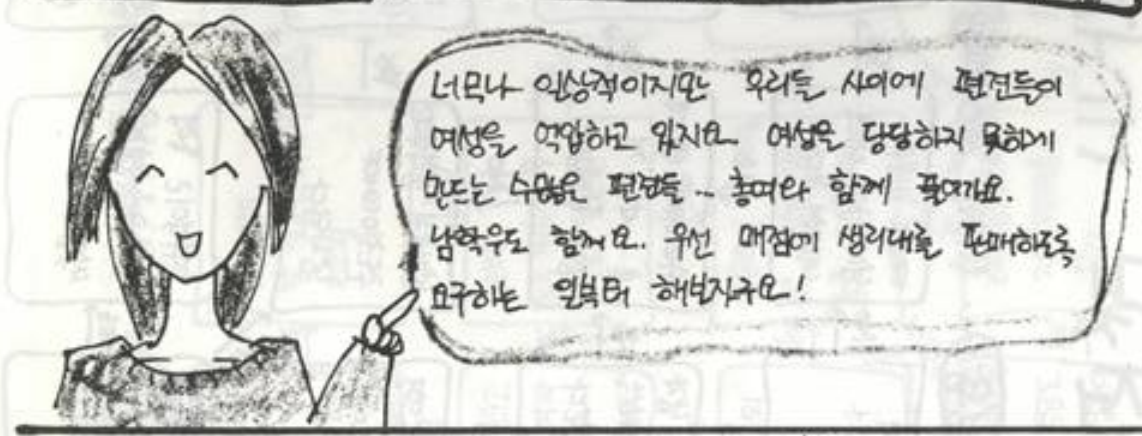
시대에서
여대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 예까지 많은 달거리.



“ 생리대를 구해라! 빨리 생리대를 구해야 해!”



가장 아한 이름마: 아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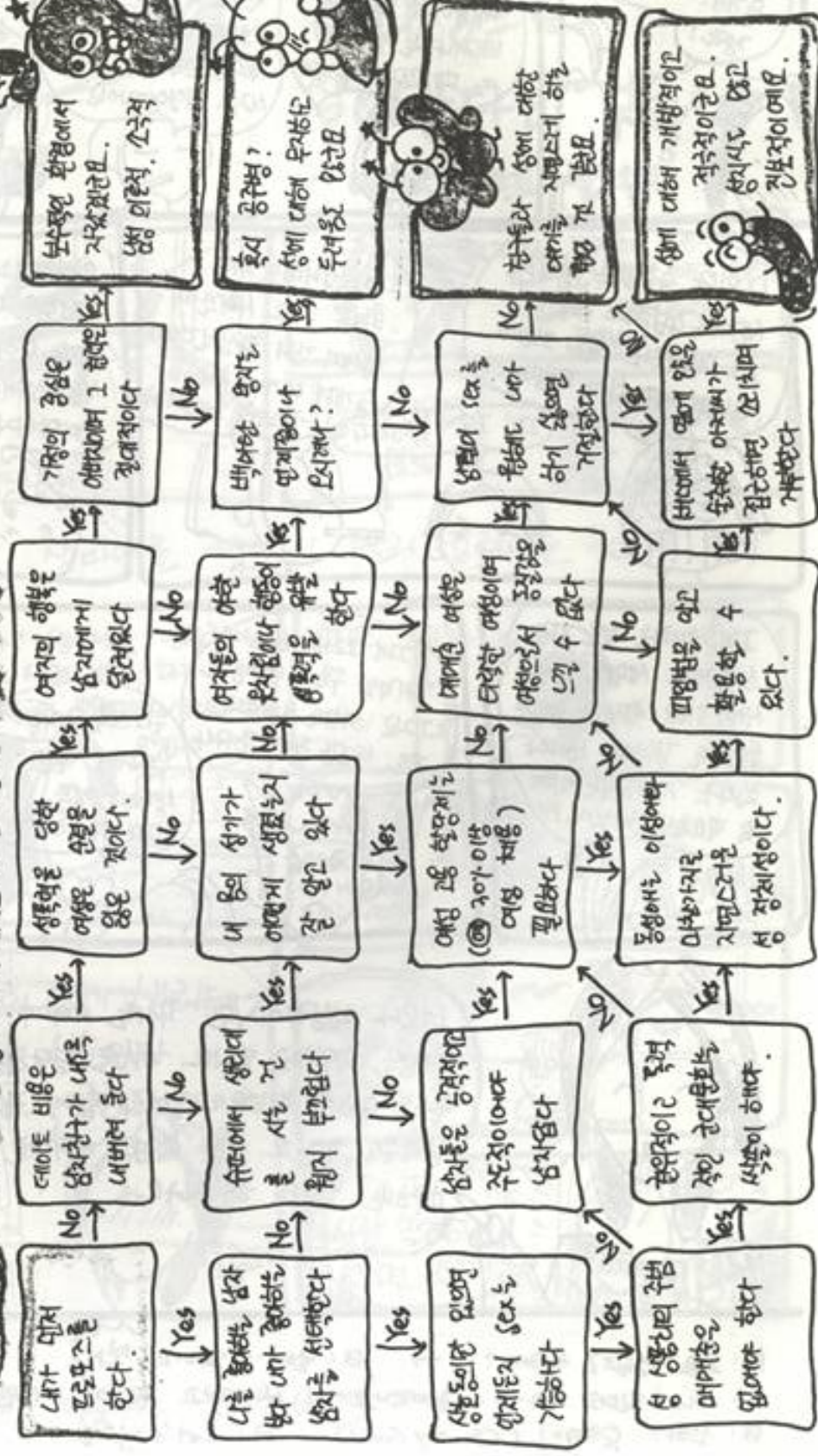


A: 요즘 방음으로 뭐하지? → B: 글썽... 없다고 봐
A: 아냐! 있다고 봐... 생리대생리대에 비디오텍과 타구제, 배드민턴채를 볼수 있지.
B: 진짜! 오하가! (Oh, my God!) A: Let's go 할



1000 471118 74255 2010105 4423 (88400)

우리 동역에서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로 점수를 매겨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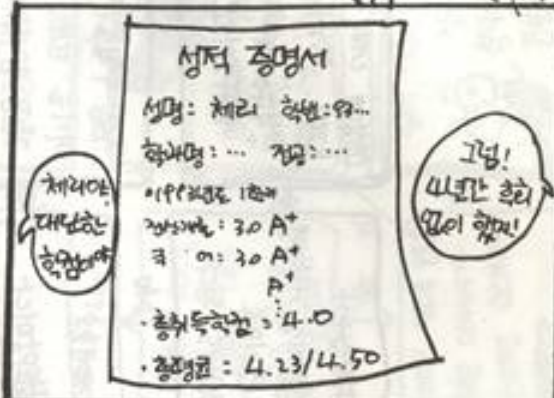


IMF와 여성!

.... 체리의 취직알기

여대생 체리 취직 준비하다.

*대학입학 이후...



어떻게 하다 취직한 체리 IMF를 맞다(I)



"화장실에서 내버려?" (총의 화장실 내버려?)

그냥 불일보고 가기에 허전하니까요?!

알고 한번 써주세요. 초고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싶어요



여학생들...

고민이 풀리지 않아요?

고민, 비켜!!!

여학생들이 해결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취직한 체리 IMF를 맞다 ... (II) (NINE가 체리에게 IMF를 주었다)



가장 야한 숫자: 야하구구만! (99만)



가장 야한 날: 야하데이! (day)



가장 야한 거 : 야하다게로.



공부를 열심히 해 학점 4.5, all A* 을 받아도 여성에게 장애가 되는 세상.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자의 본분인 가정으로 돌아가라며 여성을 우선 해고하는 세상.

여성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기에 그렇게 여성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앞의 만화에서 공격적이긴 더욱 어렵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과 사회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함께 준비하며 개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당당해져야 합니다.

- 학과 공부는 기본일 수는 있지만 전부일 수는 없다.
- 다양한 경험을 찾아서 하자. (아르바이트, 어학연수, 여행 등)
- 정보화 시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여성의 능력을 키우자.
- 조직 속에서 여성은 부수적일 수는 없다.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리더십을 기르자.
- 여성간의 연대로 여성의 힘을 키우자. 그 길에 총여학생회가 함께 합니다.

* 본 명사는 '따로' 삽입한 것입니다.



연세부터인가
아는사람들 결혼식상
꽃다지는 것이 주말의 일과가
되어버렸다
소위 잔칫집 분위기라고 여기되어지는
알뜰한 젊은 여주인은 분위기를
개성적으로 좋아하지 않고 관례로
사실은 결혼식장에 가는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던 내가

이제는 결혼식장에 가면
선봉의 드레스를, 신부도착을
석의 줄타기꾼과 같은것을
유심공하게 알게 된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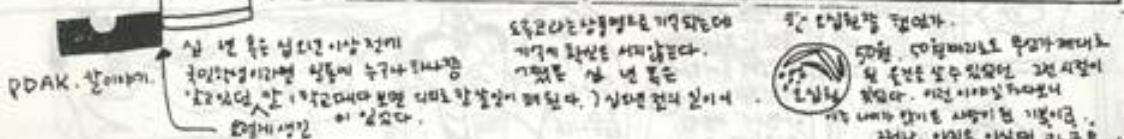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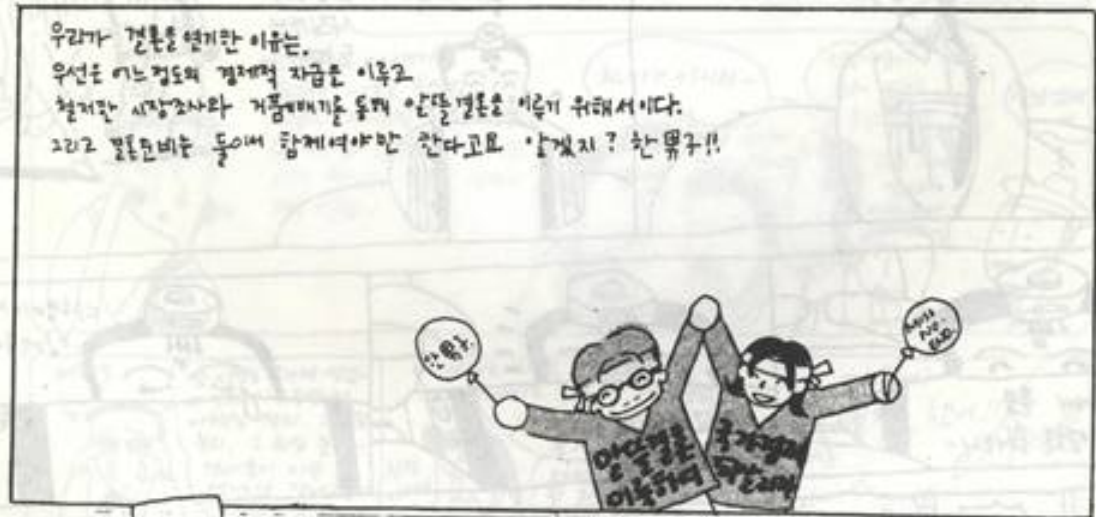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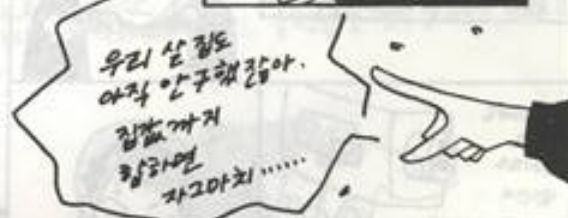
나는 남자에게
받은
프로포즈 때문이다.



처음에 연애할 때 그녀는



그 인간이



※ 자료상 ※ 예상에 대해 꼭 마라시구요? 지금 당장 참여하세요! 대매출, 상륙권, 예상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책과 자료가 있습니다~



30대를 수박에 비유했다고요?
30대 결혼한 여자와 결혼안한 여자, 두 여자가 인물되었습니다.
시간을 기다림이라는 모험담은
여자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색녀열전

開花

노처녀가 있었다
사실 노처녀는 현대의
노처녀들보다 더욱 착잡하고
초조하고 힘들었겠 같다.
현대처럼 결혼이 선택의 권한이 아니라
선택되어지는 것에 운명을 맡기는 것이
여자의 불행이라고, 이러구 저러구...
말하기 때를 안지!
여하간 그녀도 초조하고 괴로웠을 것이다
그리고,
기다렸을 것이다.

그런 여자가 있었 것처럼
그런 남자가 있었을...
개화

수박두리 그림

기다렸노라 -
찾았노라 -

건너마를
그럭저럭
나이 먹은
동생에게
시집가게
도되었다 -

초례청에서 혼품
신랑의 딸로 출세하니 -

그리말상은
아니었다 -

다행이야!
망에 들어!

자나?
무엇하니!
죽겠나 -
어디나!

신랑도 신부가
죽었는지 -
신랑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면서 연인
행운을 빌었다
신랑이 가버렸더니
잔뜩 긴장했던
신부의 마음도
어느새
풀어졌다

그럼 -
그럭저럭
만주로
출세하니
아 -
에 -

무자구, 저자구
무하 - 하 -

노처녀는 "신부"를 낚을 거라면서
행여하는 신랑의 괴로움
보면서 못한 마음을 느꼈다

누군가
가르쳐
주거나
공부하지
않아도...

신랑에 대한 열망이
그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끌려 갈라지게 되었다
(정말 끔찍하다)

우리 정말 똑똑하게 -

히익
요렇게 -
이렇게 -

아하 -

히 - 히 -

아이고 -
오 - 오 -

히 - 히 -

아이고
좋아라 -

들이 고개를 시작해서
막 절정에 이르렀을 때
신부가 흥분을 못이겨
반쯤을 보냈다 -

처음이
아닌게야 -

신랑은 결혼하게
신부가 처자가 아닐까
이런저런 고민
중이었다

불과한 그 돈 자는 신부를
남겨두고 새벽녘에
신부집을 나와
자취사로
가버렸다.

그런데도 이야기가
뒤집혀 나옴
신랑이 나가버린 이유를 나중에
들은 신부는 부끄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막히고 억울한 심정이
더욱 심해졌다.

처녀가 아니래 -

신랑이 들어
올라 오가
너 혼자만
아고 뭐야
아름답게
아름답게

죽겠는데 -

연생

난 신부도 못하게 생겼어
그 연생이 그놈을 데리고
아름답게 먹었, 그놈을
먹었, 그놈을 먹었...
개념이 자꾸
연생하고 같아지고
초조하게 죽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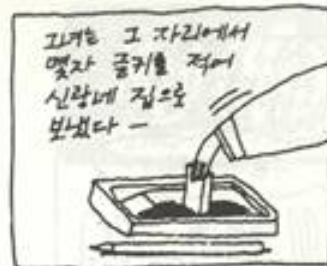
연생

여자는 자고로 방종한 애도
보내주는 일이다. 나는 평생
대중으로 수취되었다
음 - 음 -

자비로 연생이
만 고대하는
자비로 연생이

가문에
먹침을 했어!!

가장 야한 심 1 : 야할지라도
가장 야한 심 2 : 야하지만 그래도



그저 그 자리에서
땀과 글씨를 적어
신랑께 집으로
보냈다 -

春園芳草 (춘원방초)는 不雨長 (불우장) 이고,
庭前黃菊 (정전황국)은 不霜發 (불상발) 이라

"봄철의 꽃과 들은 비가 오지 않아도 피고,
뜰 앞의 노란 국화는 서리를 기다리지 않고도 핀다"



편지도 -



* 본 편은 「NINE」 중 9월호 32면입니다.

에이, 얼굴선은 아닌데 -



아름다운 개인주의



눈으로 떠나는 기화 (기화활동)



기화지은 : 이기지지를 중심으로 하는 상권과 물결을 말합니다.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불평등한 관계, 매매춘문제, 혼혈아동의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기화물터 : "새벽이 듣는 곳"이라는 뜻으로
소외된 여성들과 아이들이 겪는 문제를 듣고 해결하려는 여성단체



판... 동두천 탕재탕당 3층
새물터에서 우리의 기화도 시작된다

첫날... 새물터 기화인들과
안타고 앞으로 일정을
매거한다.

화요일부터 진행될
무궁화방 대지화로 곳곳에
붙인다.

둘째날... 카바터 진행하는 무궁화방시간.

P.M. 8:00 ~ 8:30 밤안락숙제방
여직 학교에 안다는 아이들이 엄마가 밤에
일하기 때문에 이곳에 맡겨진다.

셋째날... 카바터. 영서제각.

포럼일을 하는
XX 아구메니는
항상 이것저것
거쳐와한다.
아구메니가 끌어올리는
매거들은 눈을 감지만
한다.

넷째날... 이명철 오바 대 방문.
부관에 사는 특이한 사람인 강애자 시인.
시를 대필하고 감상일을 받는다.

이명철의 여인들
비디오 보고
토론하기.

다섯째날... 클럽수련다습.

이슬과 함께 평가시간.

여섯째날...
눈을
물려
새물터
나온다.
비록은 영서제
고양이...

기화를 마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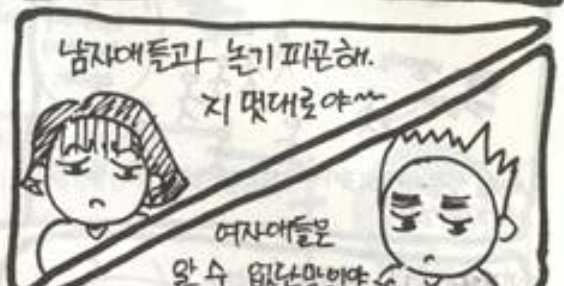
'매매춘'에 대해 잠깐!!! ('매춘'이 아니라 '매매춘'이에요. 성을 사고파는 상호관계이니까요)

흔히들 '매매춘은 필요악이다'라는 말을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필요악이란 역기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순기능이 있어 계속 유지되는 제도, 문화들을 말한다.
매매춘에 순기능은 없다.
돈만 있으면 성을 살 수 있는 현실이 인간의 성욕을 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든다.
물론 남성들이 청량리나 천호동, 미아리에 가는 것은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뿐 아니라,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결국 매매춘은 돈과 성관계의 교환이므로, 인간의 몸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매매춘의 가장 큰 역기능이다. 버스가 자동화되면서 버스 안내인들이 필요없게 되자,
일지리를 잃은 대부분의 버스 안내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윤락여성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매춘(賣春)이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남성 접대부도 경제적인 이유에서 매춘(賣春)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춘(賣春)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직장이 마련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매매춘(賣買春)은 없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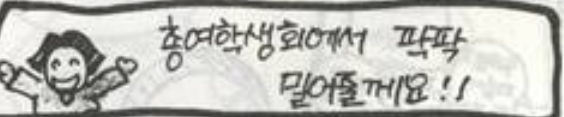
방종 세미나



여성학 소모임



우리 모여서 대화해보자!



여성단체 전화번호

한국 성폭력 상담소	☎02)529-4271~2	한국 여성 단체 연합	☎02)273-9535
일본 상담	☎02)529-4271~2	한국 여성 협의회	☎02)794-4560
위기 상담	☎02)573-1888	여성 문화 예술 기획	☎02)762-6048
가정 법률 사무소	☎02)782-3427	한국 여성 연구회	☎02)887-8198
여성 건강 상담소	☎02)916-1662	한국 여성 민우회	☎02)269-2962-4
한국 여성 개발원	☎02)356-0070	한국 여성의 전화	☎02)269-2926-4
한국 여성 노동자 협의회 ☎02)869-0516			

학내 성폭력 추방!

이제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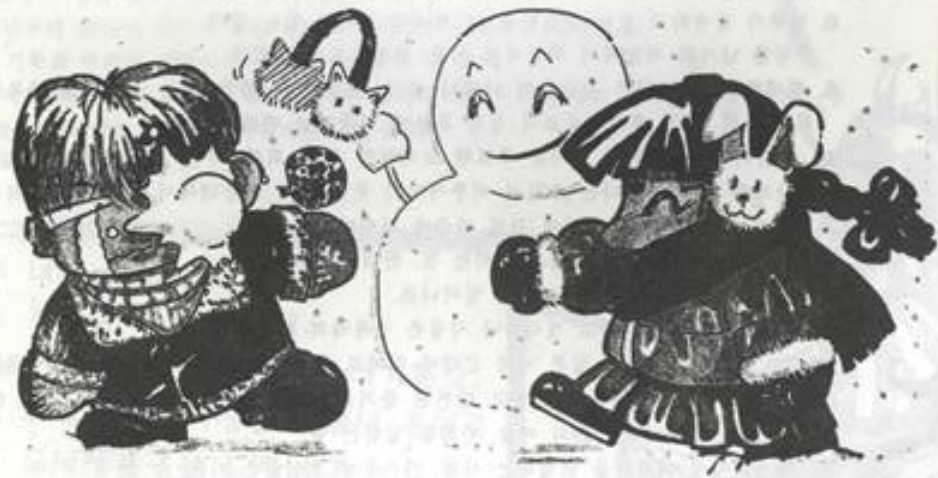
학내 성폭력 관련 학칙제정.

성폭력 관련 학칙은 자치규약의 형태로 적용되어 객관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지부진한 학내 성폭력 사건해결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한번 겪게 되는 고통을 줄일 수 있게 합니다.

현재법으로 성폭력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이 주어지는 것이 사실인 점을 고려하면 자치규약의 형태로 학칙의 마련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학칙제정은 성폭력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학내에서 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13대 총여학생회는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학보를 위한 여성 연대회의'에 참여하면서 학칙 기안을 작성 중이며, 이후 학내 상황에 알맞게 수정, 보완하여 학교측에 적극 문제제기 하도록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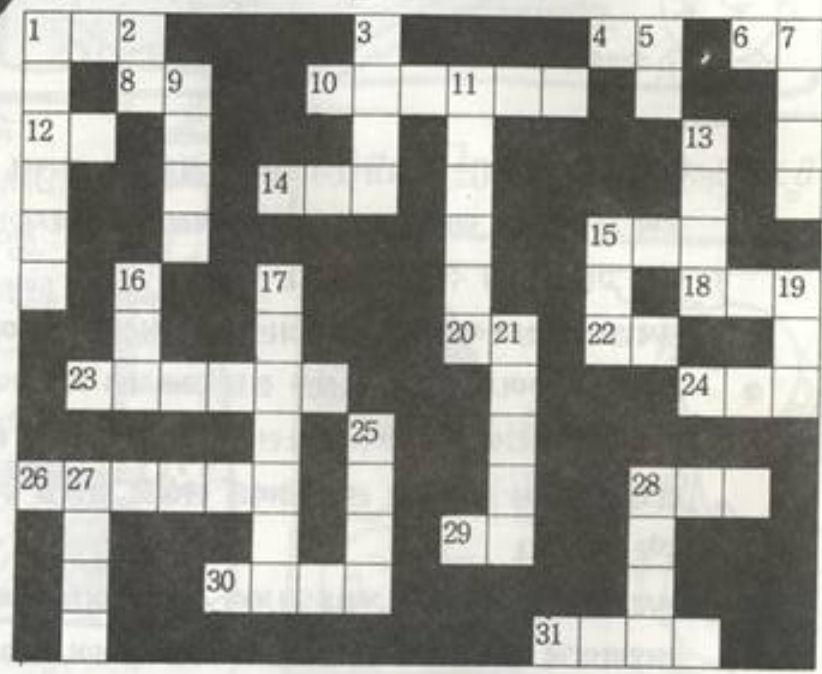
학칙 기안의 자세한 내용은 이후 13대 총여학생회에서 발행할 '학내 성폭력 백서'에 포함됩니다.





Cross! Cross! Cross! PUZZLE!

매일 아침마다...



가로열쇠

- 여성문제의 이론적 체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 여성에 '관한' 연구에 머무르지 않고 진정으로 여성을 '위한' 연구가 목적이요.
- 청량리와 휘경 사이의 역이름. 경희대보다 우리학교가 더 가까운데 왜 경희대 입구라고 밑에 써 있는지....
- 임부가 발육하고 있는 수정란을 그 체내에 가지고 있는 상태. 수정한 난자의 자궁벽의 착상에서 시작, 분만으로서 그친다.
- 경계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나체나 성기, 옷을 벗는 행동. 또는 성행위를 반복적으로 흥취하는 것. 단지 흥취함으로써 성적 흥분에 만족하는 변태의 하나.
- 인간의 성적 행위의 묘사를 주요한 도색적인 영화, 회화, 사진, 소설을 통틀어 일컫는 말.
-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자궁내에서 임신준비를 하던 난막이 떨어져 나오는 현상. 한달에 한번 마술에 걸린다나!
- 가학을 하면서 성적 만족을 느끼는 것. 반대말 매조키즘
-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흔히 일어나요. 이것을 친분의 표시라고 생각하나 사실은 성폭력의 하나.
- 2차 세계 대전 중에 일본 제국 군대에 강제로 끌려가 성노예가 되었던 여성들을 지칭.
- 순정만화라는 타이틀을 던지고 발전된 즐거운 상상, 자기주의 여성만화 잡지. 97년 12월 9일에 창간했습니다. 제9의 예술, 만화를 일컫는 말.
- 방거리에서 여성들을 위협하는 사람. 가스충에 호신술은 기본.
-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자생성을 형성시켜나가는 새로운 급진적 페미니즘. 여성간의 사랑. 자매애

- 한총련사때 경찰에 연행된 여학생들이 당한 성추행을 폭로한 국민회의 여성의원
- 더 이상 사랑만을 꿈꾸며 살지 않는 평범한 주부와 독신녀 웨이트리스. 그들이 일상과 가정으로부터 탈출을 꿈꾼다. 수잔 서랜돈, 지나 데이비스 주연의 영화
- 김자옥 신드롬으로 유명해짐. 자신감의 발로일 수 있으나 지나치면 역시 병이요.
- 총여학생회 열에 여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요. 휴게실, 공부방, 샤워실 등이 있어요.
-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고추아가씨 선발대회까지.... 여성육체의 대상화, 상품화라는 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죠.
- 동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행위. 나오다라는 뜻.

세로열쇠

- 대학회관 2층 보건소내에 위치한 곳. 성폭력에 관한 상담과 성에 관한 담론의 장이랍니다.
- 대학회관의 출입말. 이곳에는 기구 학생회와 동아리방, 매점 그리고 식당이 있습니다.
- 성관계 때의 쾌감 곡선의 정점. 여성과 남성의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노력이 필요하죠.
- 기존의 지역의 여성과 아이들의 삶을 이해하고 다 함께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
- 유리구두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니다. 왕자님과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동화. 본래 뜻은 부엌대기.
- 불쾌감을 주는 성적인 농담들. 언어적 성희롱. 일명 EDPS
- 터프가이 최불암 아저씨, 귀여운 여자 박원숙 아줌마의 연기가 돋보이는 MBC 주말연속극.
- 남성은 주로 페니스의 귀두 부분의 마찰을, 여성은 음핵이나 질주위를 자극하는 행위. 사회통념과는 달리 자신의 성감을 발견하고 자신이 스스로 몸을 조절하는 긍정적 기능.
- 성은 사적인 것이 아니라 엄연히 권력관계가 내재된 것이요. 성이란 것은 여성문제뿐 아니라 인종, 계급, 민족속에서 보이지 않게 작용함을 밝혀낸 급진 좌파의 새로운 정치.
- 동성애자나 마약 중독자에게만 한정된 질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질병. 후천성 면역 결핍증
- 아편 고리스 감독의 영화. 가부장제 사회의 가치와 제도가 배제된 여성들의 공동체의 평화롭고 유쾌한 삶. 안토니아라는 여성의 가계
- 지금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모성애만 강요하는 것이 현실. 그러나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사랑의 결정체이므로 이것 또한 꼭 필요하죠.
- 갓 태어난 아이가 미국아이거나 조숙아일때, 혹은 호르몬을 하지 못하거나 할 때 이 조그만 것 안에 들어가있죠.
-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신대 할머니들이 여는 집회. 피해보상과 일본 정부 사죄를 요구하죠.
- 1560년부터 1670년 사이에 유럽 전역에서 행해진 대규모의 여성살해. 중세 기독교 주의와 권력이 가졌던 여성탄압의 한 형태.
- 가족과 사회가 함께 육아의 책임을 지며, 양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미래의 주인공들을 양육하는 것. 가장 바람직한 육아상이요.

퍼즐이 너무 어렵나요?
그래도 조금만 힘을 내세요.
자로집을 찾아보면 답이 다 보이거든요.
퍼즐의 80%(27개) 이상을 맞춰서 총어로 오시면 도서상품권을 드립니다.
선착순 10명!! 서두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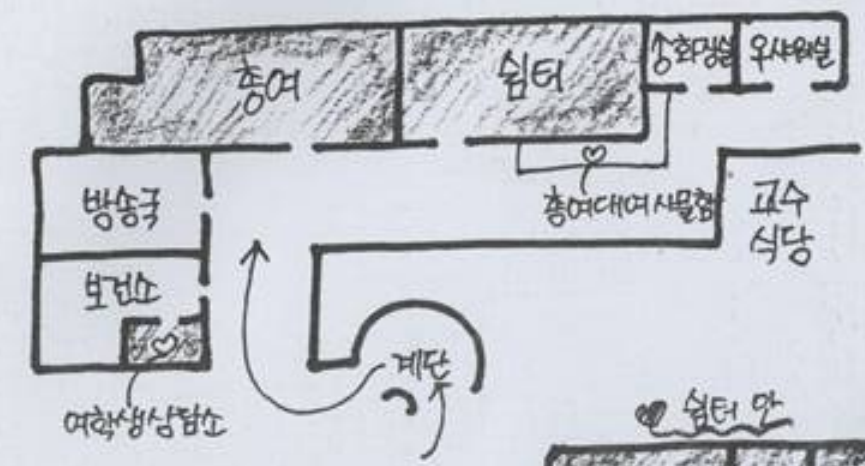




여자가 사고,
남자는 본다. ㄹ

총여가 어디있냐구요?

♥ 학생회관 2층



♥ 도서관 4층에 여학생 휴게실도 있어요!